

# 5·18 암매장 추정지인데...무개념 유골 수습 '논란'

### 옛 광주교도소 유골 수습 동영상 보니

### 법의학자 "손으로 헤집는 등 험하게 다루 손상 더 컸을 것"

### 법무부 책임론 대두...추후 발굴·감정작업 전문가가 참여해야

법무부가 5·18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공동묘지 부지에서 '5·18 행방불명자' 유골 가능성이 있는 유골 40여 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골들을 험하게 다루는 과정이 찍힌 동영상 공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일부라도 5·18행방불명자 유골로 결론날 경우 유골 부실 수습에 따른 법무부의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는 대목이다.

5월 3단계(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 부상자회)는 앞으로 진행될 유골 발굴·감정작업 등에 대해서 단계 추천 5·18 전문가와 법의학자 등이 반드시 참여·협의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법무부와 광주시,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솔로몬 로파크' 조성을 위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분묘 개장 작업이 지난 16일부터 진행됐다.

광주일보가 지난 19일 유골수습 작업을 하던 인부 5명 중 한명이 44초 가량 찍은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유골을 거칠게 다루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인부들은 면장갑을 낀 손으로 흙에서 유골의 뼈를 털어내고 삽에 담은 작업을 반

복했으며, 동영상 20~25초 지점에서 수습한 뿔조각이 삽에서 굴러 떨어지자 다시 삽에 주어 담은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또 13~16초 사이엔 부스러진 뼈들을 손으로 대충 훑어 분류해 풀라내는 장면도 있었다.

해당 동영상을 접한 5월 관계자들과 법의학자들은 "5·18과 관련해 중요 단서 등이 있을 수 있는데도, 고인을 예우하지 않는 이 같은 유골수습 방식은 처음 본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 법의학자는 "손으로 헤집고 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유골의 손상이 더 컸을 것"이라며 "발견 당시 40여 구의 유골이 뒤엉켜 있고 부식이 심각한 상태였던 만큼 처음부터 더 조심스럽고 체계적으로 발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법의학자는 "유골 내 유류품 발견이 없는 것도 부실 수습 때문일 수 있다"면서 "물론 지 오래된 유류품 발견을 위해 서러한 주변 흙까지 조심히 고운 체에 담아 일일이 거르면서 확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5·18암매장지 발굴 전문가인 박종태 전



지난 19일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공동묘지 부지에서 유골을 수습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면장갑을 낀 손으로 흙에서 유골의 뼈를 털어내 삽에 담은 작업을 하고 있다. <동영상 캡처>

남대 법의학 교수는 "이번에 유골을 수습한 업체 직원들은 이장작업으로 생각해 신중한 유골발굴 작업과는 달리 뿔조각 수습 위주로 작업을 한 듯 하다"며 "5·18 중요 사적지 내 유해 발굴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개장 작업을 맡은 현장소장은 "유골발굴과 이장 작업은 비슷한 개념"이라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작업을 하던 장소가 5·18사적지 제22호로 지정된 장소이고,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집중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내 였다는 점에서, 유골수습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신순용 전 소령의 증언을 비롯해 본부대대 소속 유모 병장,



23일 오전 장성 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 옛 광주교도소 신원미상 유골에 대한 법의학 전문가 사전 협의에서 양경무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맨오른쪽) 등이 논의를 하고 있다.

15대대 소속 김모 하사 등 3명의 계엄군들이 암매장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5월 3단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골은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등 관련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유골의 정밀감식과 유전자 추출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일체의 절차는 5·18 단체와 광주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

구를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유승만 교정정책담당 등 교정당국 실무자 9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골의 뒤엎김 현상이 심각해 개인별 유골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보이며, 일부 유골은 분류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시외버스 '블랙 아이스' 사고...순천서 1명 사망·9명 부상

###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 넘어 승용차·화물차 잇따라 충돌

시외버스가 빙판이 얼어붙은 이른바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지면서 뒤집어져 승객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8시 30분께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14명을 태운 45인승 시외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 화물차와 잇달아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시외버스는 전도됐으며 버스에 타고 있던 A(57)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버스 운전사와 승객, 승용차 운전자 등 9명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승객은 병원에 가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아침에 내린 비가 얼어 붙어 생기는 '블랙 아이스' 구간으로 대부분 차가 속도를 줄여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 아이스 감지·예방 장치 개발 눈길

### 광주대 방걸원 교수팀

광주대학교 IT자동차학과 방걸원 교수팀이 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범인 '블랙 아이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IoT결빙감지장치'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광주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인정보기술과 공동 개발한 'IoT결빙감지장치'는 도로의 노면 온도와 기온, 습도, 기압, 강수량 등을 측정하는 도로 기상측정 장치와 측정

된 데이터를 LTE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도로 노면의 결빙 가능성과 결빙상태 등을 판단해 도로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도로 노면의 상태까지 확인 가능하다.

방 교수팀은 "IoT결빙감지장치"를 블랙 아이스 상습구간에 설치, 후방의 전방관에 노면 상태 정보를 알려서 교통사

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사전 제설 및 사고 예방 활용을 비롯해 제설 관련 장비 및 시설 연결, 스마트 유지관리 기호 마련, 도로 결빙 정보 모바일 앱 제공 등도 가능하다.

이번 'IoT결빙감지장치'는 방 교수팀이 지난 2016년 '결빙 알리미'를 개발해 호남고속도로와 광주대구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에 사용 중인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장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여수산단 화력발전소 불 20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23일 오전 9시 3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났다. 불은 유연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부위에서 시작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15대와 119구조대 등 40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추진기에 맞출 걸려 선박 표류 해경 잠수요원이 제거해 구조

신안군 흑산도 바다에서 23일 어획물 운반선이 항해중 추진기에 부유물이 걸려 조난 위기에 처했지만 출동한 해경 잠수요원들이 바다 속에서 로프 30kg을 제거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2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신안군 흑산도 곤촌선착장 앞 해상에서 어획물운반선 A호(23t·승원 2명)의 추진기가 양식장 닻줄에 걸려 표류중이라는 선장 김모(57)씨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광주 모텔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30대 용의자 형질수설

광주북부경찰은 23일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새벽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의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일부 부상자는 생명이 위중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는 등 범행 과정을 자백했다.

범행동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저 여자 좀 눈앞에서 치워달라',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형질수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전문의에게 김씨 정신 감정을 의뢰해,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씨의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술 취해 잠든 여성회원 2명 성폭행 하려한 연합동아리 대표

### ○...술에 취해 잠든 대학연합동아리 여성회원 2명을 성폭행하려한 동아리 대표가 절창행.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18일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합동아리 신입부원 면접 후 뒤풀이를 하고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여대생 B, C씨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잠이 든 뒤 이튿날 아침 잠든 B,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C씨를 폭행까지 했다는 것.

○C씨는 A씨의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사립 K대생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연합뉴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꼭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